

초등학교 비만아와 정상체중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Effects of Self-perceived Obesity, Peer Victimization, Stress, and
Maternal Child Rearing Behaviors on the Self-esteem of Obese and
Normal Weight Elementary School Children*

박응임(Ung-Im Park)¹⁾

정운선(Woon-Seon Jeong)²⁾

이혜상(Hye-Sang Lee)³⁾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effects of self-perceived obesity, peer victimization, stress, and maternal child rearing behaviors on self-esteem in an obese group(OG) and a normal weight group(NWG)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Subjects were 1,501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the 4th to the 6th grades in Seoul, Busan, Daegu, Gwangju, and Andong and their mothers. Major findings were that maternal child rearing behaviors and stress related to parents and home environments influenced children's self esteem only in the NWG; school-related stress was an influential variable on children's self esteem in both the NWG and OG. Peer victimization influenced children's self-esteem in both NWG and OG. Self-perceived obesity influenced some domains of children's self-esteem, especially in girls.

Key Words : 자아존중감(self-esteem), 또래괴롭힘(peer victimization), 스트레스(stress), 어머니 양육 행동(maternal child rearing behavior), 비만아동(obese children).

*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목적기초연구(R01-2001-000-00524-0)지원으로 수행되었음.

¹⁾ 안동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환경복지학과 부교수

²⁾ 안동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³⁾ 안동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Ung-Im Park, Departmen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Andong National University,
388 Songchun-dong, Andong 760-749, Korea

E-mail : ungim@andong.ac.kr

I. 서론

현대사회에서는 성인비만 못지않게 아동의 비만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의 비만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어(강운주·홍창호·홍영진, 1997; 경상북도 교육청, 1996), 아동 비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동기의 비만은 신체적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Berk, 2000),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낮은 자아존중감이다. 비만한 아동이 정상체중 아동에 비해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낸다는 것은 이미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김정화, 2000; 김지선, 1999; 박항순, 1999; 이분옥, 1999; 정운선·이혜상·박응임, 2003).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역량 또는 유능함과 자아가치에 대한 평가적 신념으로(이숙·최정미, 2003; 홍성훈·도현심, 2002),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과 평가는 한 인간의 발달적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Harter, 1982), 개인의 적응 및 건전한 인성발달과 자아실현에 중요한 요소로서 그의 행동, 감정, 동기, 성취 및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영향을 끼친다. 이처럼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것이 아동의 심리적 건강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비만 아동이 정상체중 아동에 비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동발달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비만 아동은 비만으로 인해 신체적 열등감 뿐 만 아니라 심리적 열등감에 시달릴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 있어 비만인 체중을 정상으로 되돌리려는 노력과 동시에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려는 노력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자아존중감에 어떤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있어서 비

만아동과 정상체중아동 간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즉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받는 존중, 수용, 관심 등에 의해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발달하게 되므로, 아동에게는 생후 최초의 관계를 형성하여 가장 많은 접촉을 하게 되는 대상인 어머니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박경리·김경연, 2001).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수용 및 온정이나 애정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하였으며, 어머니의 거부, 제재, 통제 및 권위적인 양육행동 등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수경, 1995; 김희경, 1990; 도현심·최미경, 1998; 박영애, 1996; 오순환, 1991; Harter, 1998). 즉, 어머니가 자녀를 애정적으로 대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도록 격려할 때, 자녀는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되는 반면에, 부모가 통제, 거부와 제재를 많이 하면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볼 때, 비만아동과 정상체중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어머니 양육행동이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체중집단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는 아동중기에 들어서면서 아동과 자주 접촉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 또래의 영향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또래에 의해 높게 수용되는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은 높은 반면, 또래에 의해 낮게 수용되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낮게 나타난다(양원경·도현심, 1999; Patterson, Kupersmidt, & Griesler, 1990). 또래관계의 또 다른 측면을 나타내는 또래괴롭힘에서도 또래에게 괴롭힘을 경험

한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낮았다(양원경, 도현심, 1999; Egan, & Perry, 1998). 비만아동은 정상체중 아동에 비해 신체외모로 인해 또래에게 놀림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기 쉬우므로(Berk, 2000; Thompson & Smolak, 2001), 체중집단별로 또래의 영향 중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 역시 향후 비만아동 혹은 정상체중아동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계획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대사회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 또한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문금순, 1993). 특히 우리나라 아동들은 학업과 과외 활동에 대한 높은 요구와 기대로 학업, 친구관계, 가족관계, 외모, 주변 환경 등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다(류수영, 1993; 안경숙, 1994; 천성주, 1992; 한미현, 1996; 허혜숙, 1996). 더욱이 비만아동의 경우, 외모와 운동능력의 열등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으며, 실제 연구에서도 정상아동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특히 친구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송정선, 2001; 정운선 외, 2003; 조양래, 1997; 홍지화, 1998). 이에 비추어 볼 때,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스트레스의 영향도 비만아동과 정상체중아동 간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이를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정운선 외(2003)의 연구에 의하면 정상체중 아동의 29.4%가 자신을 비만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비만아동의 10.4%가 자신을 비만하지 않다고 응답해 상당수 아동들이 자신의 체형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아동의 주관적 비만도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주관적 비만도 역시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가정해볼

수 있다. 따라서 비만아동과 정상체중아동 별로 주관적 비만도의 영향력을 알아보는 것은 아동의 건전한 자아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계획 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을 둘러싼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비만, 스트레스, 또래괴롭힘 등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아동의 인성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밝혀내는 것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비만아동과 정상체중아동은 각기 다른 심리적 특성을 나타내므로, 이들을 따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만아동과 정상체중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아동의 주관적 비만도, 또래괴롭힘, 스트레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려고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대표성을 띤 연구대상을 표집하기 위해 전국 5개 도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안동)의 초등학교 10개교를 선정하여, 4~6학년이 재학 중인 남녀 아동 2,730명과 아동의 어머니 2,730명(총 5,4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초등학교 고학년인 아동 중기 이후부터 아동 후기에 자아존중감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발달하며, 자신에 대해 긍정적 평가와 아울러 부정적 평가가 가능하고, 자신의 능력이나 개인 내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Harter,

1998).

설문지는 2002년 4월 1일부터 6일까지 배부하여 아동 2,570부(회수율 94.1%)와 어머니 2,562부(회수율 93.8%)를 회수하였다. 이 중,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 84부(3.3%)와 저체중 및 과체중으로 평가된 아동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정상체중군과 비만군에 속한 아동(1,501명)과 그들의 어머니에게서 얻은 설문지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자료분석 대상 아동들 중 정상체중군의 아동은 1,192명(79.4%), 비만군의 아동은 309명(20.6%)이었다

아동의 신장과 체중은 각 초등학교 양호실에 설치된 신체계측기를 사용하여 양호교사가 조사기간 내에 직접 측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비만도를 산출하였다. 비만도는 실제체중을 표준체중으로 나눈 값으로 비만도에서는 표준체중이 중요한 변인이 되는데,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한소아과학회(1999)에서 제시한 신장별 체중표의 평균값을 표준체중으로 인정한 '한국소아발육표준치'에 근거하여 표준체중을 구하였다. 비만도가 0.9미만은 저체중군, 0.9 이상에서 1.1미만은 정상체중군, 1.1 이상에서 1.2미만은 과체중군, 1.2 이상은 비만군으로 판정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자신의 신체상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주관적 비만도를 측정하였다. 주관적 비만도는 '나는 살찐 편이다' 라는 설문문항을 통하여 알아보았는데, 이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살찐 것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한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한 9개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 중 232명(저체중아동 41명, 정상아동 89명, 비만아동 102명)을 대상으로 2001년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에서는 예비조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 중 변별력이 없거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부 문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아동의 자아존중감, 또래괴롭힘, 그리고 스트레스는 아동에게 설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어머니에게 설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1) 자아존중감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Harter, 1985)을 요인분석한 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총 31문항으로서 6개의 하위영역(전반적 자아가치, 사회수용도, 학업능력, 운동능력, 신체외모, 행동품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적합치도 지수로 알아본 신뢰도계수 α 는 .54~.82였다. 전반적 자아가치(6문항, $\alpha=.65$)는 아동이 자신과 자신의 생활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며 만족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학업능력(6문항, $\alpha=.77$)은 학교 공부를 잘하는지, 공부에 대해 자신감을 갖는지 등에 대한 자신의 지각을 측정하며, 사회수용도(6문항, $\alpha=.78$)는 또래에게 인기가 있는지, 친구들이 많은 지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측정한다. 행동품행(5문항, $\alpha=.54$)은 자신이 행동을 올바르게 하는지, 말썽을 일으킨다고 느끼는지를 측정하고, 신체외모(4문항, $\alpha=.57$)는 자신의 외모에 대해 만족하고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며, 운동능력(4문항, $\alpha=.82$)은 운동신경이 좋으며 운동에 자신이 있는 지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측정한다. 각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2) 또래괴롭힘

또래괴롭힘은 아동의 또래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로 또래에게서 놀림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한 경험을 측정하는 것으로, Perry와 동료들의 또래괴롭힘 척도를 양원경(199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원래 이 척도는 또래평가, 교사평가, 혹은 자기보고에 의해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행연구(양원경, 1998)에서 이들 평가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면서 타당도를 제시하였고, 자기보고식의 평가가 또래괴롭힘을 측정하는데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아동들에 의한 자기보고식으로 또래괴롭힘 경험을 평가하였다. 이 척도는 7문항으로 구성되며,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에게서 괴롭힘을 많이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지수로 알아본 신뢰도는 $=.88$ 이었다.

3) 스트레스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한미현(1996)의 스트레스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원래 이 척도는 4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문항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변별력이 없는 문항과 신뢰도를 낮추는 문항들을 삭제하였다. 그 결과, 부모, 가정환경, 친구, 학업, 교사, 주변환경의 6개 하위영역의 총 37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내적합치도 지수로 알아본 신뢰도 계수는 $\alpha = .74 \sim .89$ 였다. 부모스트레스(8문항, $\alpha = .80$)는 부모의 무관심, 간섭, 과잉기대 등으로 인해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나타내며, 가정환경스트레스(7문항, $\alpha = .83$)는 가족의 분위기나 물리적 가정환경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나타낸다. 친구스트레스(7문항, $\alpha = .89$)는 친구들의 무시나 놀림, 원만하지 못한 친구관계 등으로 인한 스

트레스를 나타내며, 학업스트레스(4문항, $\alpha = .77$)는 과중한 학습량과 성적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이다. 교사스트레스(6문항, $\alpha = .77$)는 선생님의 편애와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뜻하고, 주변환경스트레스(5문항, $\alpha = .74$)는 학교나 집 주변 환경의 불편함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뜻한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것은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그렇다'는 3점, '매우 그렇다'는 4점으로 평가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임희수(2001)의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를 요인분석 한 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총 35문항으로 애정, 합리적지도, 과보호, 거부통제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 유형을 긍정적 양육행동과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구분하고자 하였으므로, 애정과 합리적 지도를 묶어 긍정양육행동으로, 과보호와 거부통제를 묶어 부정양육행동으로 명명하였다. 긍정양육행동은 아동 중심적이며, 아동을 존중하고 수용하며 아동의 요구에 민감하고, 아동의 행동을 허용하는 것과 제한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갖고 설명해주는 태도를 말한다. 부정양육행동은 아동의 독립적인 행동을 격려하기보다 의존성을 길러주는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관심을 갖거나 뒷바라지하고, 자녀를 비난하고 거부적이며 어른의 기준에 맞추어 아동의 행동을 제한하고 간섭하며 지시하는 태도를 말한다. 점수는 '전혀 그런 적 없다'의 1점부터, '항상 그렇다'의 4점까지 부여했으며,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양육하거나 부정적으로 양육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내적합

치도 지수로 알아본 척도의 신뢰도계수 α 는 긍정양육행동 .84였고, 부정양육행동은 .79였다.

3. 통계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PC+(Window 10.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검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각 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 아동과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표 1>은 체중집단별로 살펴본 연구대상 아동과 어머니의 특성이다. 전체 1,501명 중 남아의 수는 833명(55.5%)이고 여아의 수는 668명(44.5%)이었다. 이 중 남아는 정상체중군이 642명(77.1%), 비만군이 191명(22.9%)이었고, 여아는 정상체중군이 550명(82.3%), 비만군이 118명(17.7%)이었다.

남아의 신장과 체중은 각각 $142.2 \pm 0.2\text{cm}$ (평균 \pm 표준오차)와 $39.0 \pm 0.3\text{kg}$ 이었고, 여아의 신장과 체중은 $142.4 \pm 0.2\text{cm}$ 와 $37.5 \pm 0.3\text{kg}$ 이었으며, 연구대상 아동들은 4, 5, 6학년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었다. 아동의 체중집단별로 본 정상체중 아동의 어머니와 비만아동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어머니의 학력은 대부분(90% 이상)이 고졸 이상이었다.

<표 1> 아동과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정상체중군 (N=1,192)	비만군 (N=309)	
아 동	신 장 (cm)	141.7 \pm 0.2	143.2 \pm 0.4	
	체 중 (kg)	37.2 \pm 0.2	50.2 \pm 0.6	
	성 명 (명)	남	642 (53.9)	191 (61.8)
		여	550 (46.1)	118 (38.2)
	학 년 별 (명)	4학년	406 (34.1)	120 (38.8)
		5학년	417 (35.0)	90 (29.1)
6학년		369 (31.0)	99 (32.0)	
어 머 니	연 령 (세)	39.5 \pm 0.1	39.8 \pm 0.2	
	학 령	중졸이하	100 (8.8)	22 (7.8)
		고 졸	558 (48.7)	138 (48.8)
		전문대졸이상	488 (42.6)	123 (43.4)

평균 \pm 표준오차, ()안은 백분율임.

2.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주관적 비만도, 또래괴롭힘, 스트레스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전체 아동을 정상체중군과 비만군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남아와 여아로 나누어 네 가지 집단에서 각각 살펴보았다. 우선, 이들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확인하고,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각 하위영역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독립변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수는 .66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배제되었다. 이에 따라 각 집단별로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각 하위영역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변인들을 다중회귀분석에 투입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를 보면, 정상체중군 남아의 경우, 자아존중감 중 전반적 자아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또래괴롭힘, 가정환경 및 학업 스트레스,

〈표 2〉 아동의 전반적 자아가치에 대한 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독립변인	정상체중군				비만군			
	남(N=642)		여(N=550)		남(N=191)		여(N=118)	
	B	β	B	β	B	β	B	β
주관적 비만도			-.119	-.169***			-.148	-.186*
또래괴롭힘	-.229	-.285***	-.141	-.161***	-.237	-.272***	-.268	-.286**
부모스트레스			-.103	-.119*				
가정환경스트레스	-.133	-.166**	-.179	-.208***				
친구스트레스			.084	.128*				
학업스트레스	-.166	-.271***	-.160	-.250***	-.248	-.361***	-.227	-.361**
교사스트레스								
주변환경스트레스								
긍정양육행동	.165	.081*	.199	.105**				
부정양육행동								
상수	3.367		3.375		3.684		4.043	
R^2	.306		.279		.242		.332	
Adjusted R^2	.301		.268		.233		.311	
F	55.060***		25.221***		25.539***		15.593***	

* $p < .05$ ** $p < .01$ *** $p < .001$

그리고 어머니의 긍정양육행동이였다. 즉,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받는다고 느낄수록 전반적 자아가치가 낮았고, 가정환경과 학업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전반적 자아가치가 낮았다. 반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애정적이고 합리적일수록 전반적 자아가치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들의 전체적인 설명력은 30.6%였다. 비만군 남아의 경우 정상체중군의 남아와 달리, 또래괴롭힘과 학업스트레스만이 전반적 자아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친구들에게 또래괴롭힘을 많이 경험할수록 그리고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전반적 자아가치는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전체 설명력은 24.2%로 나타났다.

여아들은 남아들과 또 다른 형태로 영향을 받고 있고 있었는데, 정상체중군과 비만군의 여아 모두에게서 주관적 비만도가 높을수록 전반적

자아가치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남아에 비해 여아가 외모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 정상체중군 여아의 경우, 주관적 비만도, 또래괴롭힘, 부모, 가정환경, 친구 및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전반적 자아가치는 낮아졌고, 어머니의 긍정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전반적 자아가치가 높아졌으며, 이들 변인들의 전체 설명력은 27.9%였다. 반면, 비만군 여아는 주관적 비만도, 또래괴롭힘 및 학업스트레스만이 전반적 자아가치를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 비만도가 높을수록, 친구들에게 또래괴롭힘을 당한다고 느끼는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전반적 자아가치는 낮아졌으며, 이들 변인들의 전체 설명력은 33.2%였다.

자아존중감 중 학업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표 3>과 같다. 정상체중군 남아의 경우,

〈표 3〉 아동의 학업능력에 대한 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독립변인	정상체중군				비만군			
	남(N=642)		여(N=550)		남(N=191)		여(N=118)	
	B	β	B	β	B	β	B	β
주관적 비만도			-.076	-.108*				
또래괴롭힘	-.210	-.244***	-.128	-.145**				
부모스트레스								
가정환경스트레스	-.079	-.093*						
친구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127	-.196***	-.150	-.232***	-.216	-.341***	-.129	-.120**
교사스트레스								
주변환경스트레스								
긍정양육행동	.381	.174***	.315	.166***				
부정양육행동								
상수	2.336		2.445		3.091		3.106	
R ²	.205		.140		.116		.129	
Adjusted R ²	.198		.133		.110		.120	
F	32.389***		18.191***		19.972***		13.895***	

*p<.05 **p<.01 ***p<.001

친구들에게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한다고 느끼는 정도가 높을수록, 가정환경 및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업능력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낮았으며, 반대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애정적이고 합리적일수록 학업능력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높아졌다. 그리고 이들 변인이 갖는 설명력은 20.5%로 나타났다. 비만군 남아의 경우는 단지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업능력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11.6%였다.

여아의 경우, 정상체중군은 주관적 비만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또래괴롭힘을 당한다고 느끼는 정도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업능력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낮았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애정적이며 합리적 지도를 나타낼수록 학업능력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변인들이 갖는 전체 설명력은 14.0%였

다. 비만군 여아의 경우는 단지 학업스트레스만이 유의하게 학업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즉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업능력에 대한 자아존중감은 낮아지며, 이것이 갖는 설명력은 12.9%로 나타났다.

〈표 4〉를 볼 때, 정상체중군 남아의 경우, 자아존중감 중 사회적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주관적 비만도, 또래괴롭힘, 친구스트레스 및 어머니의 부정양육행동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 변인들의 점수가 더 높을수록 사회적 수용도는 더 낮았으며, 이들 변인들이 갖는 전체 설명력은 31.0%였다. 이와 달리, 비만군 남아는 또래괴롭힘과 친구스트레스만이 사회적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밝혀졌다. 즉, 친구들에게서 괴롭힘을 당하고 따돌림을 받는다고 느낄수록 그리고 친구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자신의 사회적 수용도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났

〈표 4〉 아동의 사회적 수용도에 대한 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독립변인	정상체중군				비 만 군			
	남(N=642)		여(N=550)		남(N=191)		여(N=118)	
	B	β	B	β	B	β	B	β
주관적 비만도	-.061	-.084*	-.098	-.138**				
또래괴롭힘	-.305	-.357***	-.237	-.267***	-.329	-.365***	-.537	-.571***
부모스트레스								
가정환경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	-.181	-.253***	-.162	-.237***	-.145	-.211*		
학업스트레스								
교사스트레스								
주변환경스트레스								
긍정양육행동			.232	.121**				
부정양육행동	-.136	-.074*						
상수	4.393		3.379		3.847		4.014	
R^2	.310		.222		.264		.327	
Adjusted R^2	.305		.215		.255		.320	
F	57.176***		32.142***		29.216***		48.488***	

* $p < .05$ ** $p < .01$ *** $p < .001$

고, 이들 변인들의 전체 설명력은 26.4%였다. 결과를 나타냈는데, 사회적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주관적 비만도, 또래괴롭힘, 친구 정상체중군 여아는 정상체중군 남아와 유사한

〈표 5〉 아동의 신체외모에 대한 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독립변인	정상체중군				비 만 군			
	남(N=642)		여(N=550)		남(N=191)		여(N=118)	
	B	β	B	β	B	β	B	β
주관적 비만도	-.137	-.183***	-.280	-.337***	-.252	-.278***	-.318	-.367**
또래괴롭힘	-.184	-.208***						
부모스트레스			-.172	-.170**				
가정환경스트레스	-.090	-.104*						
친구스트레스			-.074	-.096*				
학업스트레스	-.107	-.158***	-.177	-.236***	-.224	-.306***		
교사스트레스								
주변환경스트레스								
긍정양육행동								
부정양육행동								
상수	3.548		3.647		3.392		2.958	
R^2	.167		.246		.167		.135	
Adjusted R^2	.161		.240		.157		.127	
F	28.350***		39.846***		16.704***		16.533***	

* $p < .05$ ** $p < .01$ *** $p < .001$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긍정양육행동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들의 전체 설명력은 22.2%였다. 즉, 실제의 비만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이 스스로 비만하다고 느낄수록, 친구들에게서 또래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더 많이 지각할수록 그리고 친구로 인해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사회적 수용도는 낮게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애정적이며 합리적으로 지도하는 양육행동을 나타낼수록 사회적 수용도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만군 여아는 정상체중군 여아와 달리, 자아존중감 중 사회적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여러 변인들 중 또래괴롭힘만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2.7%였다. 즉 비만군의 여아는 친구들에게서 또래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더 많이 지각할수록 이들의 사회적 수용도는 더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와 같이 정상체중군 남아는 주관적 비만도, 또래괴롭힘, 가정환경 및 학업 스트레스가

신체외모에 대한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들의 전체 설명력은 16.7%였다. 이는 자신이 비만하다고 느낄수록, 또래에게서 또래괴롭힘 당하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그리고 가정환경과 학업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자신의 신체외모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반면, 비만군 남아는 단지 두 변인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관적 비만도와 학업스트레스였다. 이들이 갖는 전체 설명력은 16.7%로 자신이 비만하다고 느낄수록 그리고 학업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신체외모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더 낮아진다는 것이다.

정상체중군 여아는 주관적 비만도, 부모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 및 학업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 중 신체외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전체 설명력은 24.6%였다. 즉, 이들은 실제 비만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

<표 6> 아동의 행동품행에 대한 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독립변인	정상체중군				비만군			
	남(N=642)		여(N=550)		남(N=191)		여(N=118)	
	B	β	B	β	B	β	B	β
주관적 비만도			-.087	-.148**				
또래괴롭힘	-.187	-.240***	-.185	-.255***				
부모스트레스	-.106	-.143**	-.096	-.133**	-.212	-.312**		
가정환경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교사스트레스							-.162	-.260**
주변환경스트레스								
긍정양육행동								
부정양육행동	-.143	-.086*						
상수	3.579		3.513		3.081		3.070	
R ²	.105		.128		.097		.067	
Adjusted R ²	.100		.122		.092		.059	
F	19.890***		21.774***		17.804***		8.016*	

*p<.05 **p<.01 ***p<.001

〈표 7〉 아동의 운동능력에 대한 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독립변인	정상체중군				비 만 군			
	남(N=642)		여(N=550)		남(N=191)		여(N=118)	
	B	β	B	β	B	β	B	β
주관적 비만도	-.190	-.201***	-.098	-.107*	-.304	-.269***	-.304	-.312***
또래괴롭힘	-.264	-.235***			-.245	-.202**	-.282	-.268**
부모스트레스			-.162	-.148**				
가정환경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교사스트레스								
주변환경스트레스								
긍정양육행동			.466	.187***				
부정양육행동								
상수	3.683		1.675		3.771		3.792	
R^2	.104		.077		.111		.192	
Adjusted R^2	.101		.072		.100		.177	
F	31.362***		13.540*		10.101***		13.298***	

* $p < .05$ ** $p < .01$ *** $p < .001$

이 비만하다고 지각할수록, 부모, 친구 그리고 학업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자신의 신체외모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비만군 여아의 경우는 단지 주관적 비만도만이 유의한 영향 변인으로 나타났고, 이의 설명력은 13.5%였다. 비만군 여아는 자신이 비만하다고 지각할수록 자신의 신체외모를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다.

자아존중감 중 행동품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표 6>과 같다. 정상체중군 남아의 경우, 자아존중감 중 행동품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또래괴롭힘과 부모스트레스로 이들의 전체 설명력은 10.5%였다. 이는 친구들에게서 괴롭힘을 경험하고 따돌림을 당한다고 지각할수록 그리고 부모에게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자신의 행동품행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와 달리, 비만군 남아는 부모스트레스만이 유의한 영향 변

인으로 나타나 부모에게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자신의 행동품행을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이의 설명력은 9.7%였다.

정상체중군 여아는 주관적 비만도, 또래괴롭힘, 및 부모스트레스가 행동품행에 대한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전체 설명력은 12.8%였다. 즉, 정상체중군 여아는 자신이 비만하다고 지각할수록, 친구들에게서 또래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느낄수록, 그리고 부모에게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자신의 행동품행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반면, 다른 연구대상들과 달리 비만군 여아는 교사스트레스가 행동품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은 교사에게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자신의 행동품행에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으며, 이 변인의 설명력은 6.7%였다.

<표 7>을 볼 때, 정상체중군 남아에게 있어서

자아존중감 중 운동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관적 비만도와 또래괴롭힘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전체 설명력은 10.4%였다. 즉, 실제 비만여부와 상관없이 주관적으로 자신을 비만하다고 지각할수록 그리고 친구들에게서 또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느낄수록 자신의 운동능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비만군 남아 역시, 정상체중군 남아와 마찬가지로 주관적 비만도와 또래괴롭힘이 운동능력에 대한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전체 설명력은 11.1%였다.

정상체중군 여아의 경우, 주관적 비만도, 부모 스트레스, 긍정양육행동이 자아존중감 중 운동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전체 설명력은 7.7%였다. 즉, 정상체중군 여아는 자신이 비만하다고 지각할수록 부모에게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자신의 운동능력을 더 낮게 지각하였고, 반대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애정적이고 합리적일수록 자신의 운동능력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비만군 여아는 비만군 남아 및 정상체중군 남아와 마찬가지로 주관적 비만도와 또래괴롭힘이 운동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들의 전체 설명력은 19.2%로, 이는 비만군 여아가 자신을 비만하다고 지각할수록, 그리고 친구들에게서 또래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자신의 운동능력을 더 낮게 지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 5, 6학년에 재학 중인 비만아동과 정상체중아동 및 어머니를 대상으로 해 주관적 비만도, 또래괴롭힘, 스트레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비만아동과 정상체중아동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자아존중감의 각 하위영역별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자아존중감 중 전반적 자아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정상체중군 남아와 여아, 그리고 비만체중군 남아와 여아 집단에서 각기 조금씩 차이 나게 나타났다. 우선, 정상체중군과 비만군의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서 전반적 자아가치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인은 학업스트레스였는데, 이 같은 결과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연구(박지현, 1998; 최연희, 1997)에서 아동들이 학업이나 학교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 아동들이 학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과중한 학습량과 성적에 대한 부담이 자신과 자신의 생활을 긍정적으로 지각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결과로 남아의 경우 정상체중군과 비만군 모두 주관적 비만도가 전반적 자아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여아는 정상체중군과 비만군 모두에서 주관적 비만도가 높을수록 전반적 자아가치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여아는 남아에 비해 신체외모에 대해 더 민감하므로 실제 비만 여부를 떠나 자기 스스로 자신을 비만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자아평가가 실제 신체적인 매력보다도 자신이 지각하고 있는 매력과 더 높은 관계를 나타내었다는 연구결과(Feingold, 1992)와 여아가 남아보다 외모에 덜 만족하며 이런 불만족은 여아의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가 초등학교 4학년

부터 남아보다 낮아지기 시작한다는 연구결과(Harter, 1998)와 일치한다. 이런 현상은 현대사회와 대중매체가 아동을 포함한 모든 연령에서 그리고 특히 여성에게 외모에 여러 가지로 중요성을 많이 두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결과에서 나타난 정상체중군과 비만군의 차이점을 보면, 정상체중군은 남아와 여아 모두 어머니의 긍정양육행동과 가정환경스트레스 등 부모 혹은 가정 관련 변인들이 아동의 전반적 자아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비만아동은 이와 같은 변인들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선행연구들(권수경, 1995; 김희경, 1990; 도현심·최미경, 1998; 박영애, 1996; 오순환, 1991; Harter, 1998)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관계가 있다는 것과는 달리 비만아동에게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비만아동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특성보다도 자신의 비만한 신체 조건이 자아존중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따라서 정상체중아동 보다 낮은 비만아동의 자아존중감(정운선 외, 2003) 향상을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주변 환경의 영향에 대해 고려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아동의 비만한 체중을 정상으로 낮추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 중 학업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정상체중아동과 비만아동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정상체중군 남아와 여아의 경우, 또래괴롭힘과 스트레스 및 어머니의 긍정 양육행동 등 다양한 변인들이 학업자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들(김희화, 2002; 양원경·도현심, 1999; 이숙·최정미, 2003)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난 반면, 비만아동은 단지 학업스트레스만이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전반적 자아가치와 비슷하게 비만아동의 경우, 학업자아의 형성과 발달에 부모의 양육행동과 같은 다른 변인들의 영향력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학업스트레스는 정상체중군과 비만체중군의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서 학업자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스트레스가 과중한 학습량과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것으로 학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전반적 자아가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아동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있고, 이런 스트레스가 아동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동의 사회적 수용도에 있어서는 정상체중군과 비만군의 남녀아동 모두에게서 또래괴롭힘이 사회적 수용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들(Egan, & Perry, 1998 ; 김희화, 2002, 양원경·도현심, 1999; 이숙·최정미, 2003; 최미경·도현심, 2000)의 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이는 아동들이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곧 자신에 대한 또래들의 거부로 인식해, 자신을 또래로부터 인정과 신뢰를 받지 못하는 존재로 간주하게 된다(김희화, 2002)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전반적 자아가치와 학업자아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상체중군에서는 어머니의 긍정양육행동이 여아의 사회적 수용도에, 그리고 어머니의 부정양육행동이 남아의 사회적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비만군에서는 남아와 여아 모두 아동의 사회적 수용도의 발달과 형성에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다. 선행연구(정운선 외, 2003)에서 정상체중아동에 비해 비만아동의 사회적 수용도가 낮게 나타났었고, 비만아동이 또래들에게 인기가 적고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지는

경향이 있음(Berk, 2000; Pařízková, & Hills, 2000)을 고려해볼 때, 비만아동의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의 비만도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 중 신체외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보다도 주관적 비만도였다. 이는 정상체중군과 비만군의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신체외모가 자아존중감과 가장 높은 관계를 나타내고, 자신이 지각한 신체외모가 자아존중감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Harter, 1998)을 반영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실제 비만한 신체 조건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았다고 생각하는 주관적인 지각이 신체외모에 대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므로, 비만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아울러 아동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비만군의 여아를 제외한 나머지 아동들에게서 학업스트레스가 신체외모에 대한 자아존중감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을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기고 학업에 대한 압박과 기대가 높은 현실 속에서 아동들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며, 이런 스트레스가 신체외모에 대한 자신감마저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이므로, 학업에 대한 아동들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 외 정상체중군과 비만군의 차이로 정상체중군 남아와 여아는 또래괴롭힘, 가정환경스트레스, 부모스트레스, 혹은 친구 스트레스와 같은 다른 변인들이 신체외모에 대한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비만군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자아존중감의 다른 하위영역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선행연구(정운선 외, 2003)에서 비만아동의 자아존중감 그중에서도 신체외모에서 정상체중군보다 현저하게 낮게 나타난 것을

감안할 때, 이들의 신체외모에 대한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의 신체적인 조건을 비만상태에서 정상으로 되돌리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자신이 행동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행동품행에 대한 자아존중감에는 정상체중군 남아와 여아의 경우, 또래괴롭힘 경험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양원경·도현심, 1999)를 지지하고 있다. 이는 또래로부터 놀림이나 괴롭힘을 경험하는 것은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부정적 상을 스스로 만들게 해 자신의 행동품행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비만군의 남아와 여아에게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밖에 정상체중군의 남아와 여아, 그리고 비만군 남아에게 행동품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인으로 부모스트레스가 나타났다. 즉, 부모의 무관심, 간섭 혹은 과잉기대와 같은 형태의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아동은 자신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되고 이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고 보이므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적절한 기대와 태도 형성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운동능력의 자아존중감에 있어서는 주관적 비만도, 또래괴롭힘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주관적 비만도는 모든 집단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만아동이 정상체중 아동에 비해 운동능력에 대해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것은 선행연구(김지선, 1999; 정운선 외 2003)에서 보고되고 있어, 이들의 주관적 비만도가 운동능력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상체중의 남아와 여아도 자신의 주관적인 비만도 여부에 따라 운동능력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을 때, 모든

아동들이 자신의 신체상을 정확하게 지각할 수 있도록 교육·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정상체중군 여아를 제외한 나머지 아동들의 경우, 또래괴롭힘의 경험이 많을수록 운동능력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또래로부터 놀림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 아동들은 자신 힘이 약하다고 인식하게 되고 따라서 운동능력에 대한 자신감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정상체중군 여아의 경우, 부모에게서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할수록, 그리고 어머니가 애정적이며 합리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낼수록 운동능력에 대한 자아존중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자아존중감 발달에 있어 어머니 혹은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결론을 내리면 첫째, 아동의 자아존중감에는 각 하위영역별로 그리고 아동의 성별과 비만 여부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각기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정상체중아동과 비만아동의 차이점으로 두드러진 것은 자아존중감의 몇몇 하위영역에서 나타난 것처럼, 정상체중아동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혹은 부모나 주변환경 관련 변인들이 자아존중감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나 비만아동에게서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추후 자아존중감 발달 및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아동의 비만상태를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 받을 수 있다. 즉, 정상체중아동은 긍정적 양육행동 형성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적일 수 있으나, 비만아동은 이보다도 우선 이들의 비만도를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정상체중아동과 비만아동 모두에게서 학업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의 여러 하위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을 볼 때, 우리나라 아동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고 이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아동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학습량과 활동에 대한 요구와 기대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또래괴롭힘 역시 정상체중아동과 비만아동의 자아존중감 중 몇몇 하위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또래간의 원만한 관계형성과 상호작용을 위한 또래관계 기술 습득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주관적인 비만도 또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특히 여아의 경우 더욱 그런 경향이 나타나므로, 이들이 자신의 신체상에 대한 정확한 지각과 아울러 비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식을 갖추어 자신의 신체외모나 운동능력에 대해 실제보다도 더 낮게 평가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 연구는 자아존중감에 어떤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아동의 성별과 체중별로 나누어 살펴본 자아존중감 발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해줌과 더불어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을 제시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윤주·홍창호·홍영진(1997). 서울시내 초·중·고 학생들의 최근 18년간(1979-1996년) 비만도 변화 추이 및 비만아 증가 양상. *한국영양학회지*, 30(7), 832-839.
- 경상북도교육청(1996). *학생비만지도*.

- 권수경(1995).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개념의 관계.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화(2000). 비만아동과 표준체중아동의 신체상만족도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선(1999). 비만아와 정상아의 자기지각 및 교사와 어머니의 기질평가.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경(1990).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화(2002). 청소년의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 친구 지지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9), 2002.
- 대한소아과학회(1999). 1998년 한국소아발육표준치.
- 도현심·최미경(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또래 경험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2), 19-33.
- 류수영(1993). 국민학교 고학년용 생활스트레스 척도의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금순(1993).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과 자아개념과의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경리·김경연(2001). 아동의 영역별 자아존중감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 및 또래수용도의 영향 : 단짝 친구 지지의 중재효과. *아동학회지*, 22(4), 85-97.
- 박영애(1996). 아동의 형제관계와 자존감의 관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2), 315-328.
- 박지현(1998). 정상아동과 비만아동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대처, 사회적 지지의 비교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훈순(1999). 비만아동의 신체상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정선(2001). 비만아동과 표준체중아동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의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경숙(1994). 아동의 스트레스와 행동문제간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원경(1998). 또래수용성 및 또래괴롭힘과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원경·도현심(1999). 또래수용성 및 또래괴롭힘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1(1), 223-238.
- 오순환(1991).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개념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분옥(1999). 초등학교생의 신체상에 따른 절식행동 및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 숙·최정미(2003).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또래수용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2), 31-42.
- 임희수(2001).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운선·이혜상·박용임(2003). 비만아동의 의생활, 식생활 및 심리적 특성. *대한가정학회지*, 41(1), 155-167.
- 조양래(1997). 학령기 아동의 비만스트레스와 우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천성주(1992). 국민학교 어린이의 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와와의 관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미경·도현심(2000).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단기종단적 연구 : 애착 및 우정관계의 역할. *아동학회지*, 21(3), 85-105.
- 최연희(1997). 결손가정아동과 정상가정아동의 부모-자녀관계, 일상생활 스트레스, 대처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혜숙(1996). 초등학교고학년용 생활스트레스 척도 개발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성훈·도현심(2002). 모-자녀관계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성취동기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2), 145-157.

- 홍지화(1998). 비만아동의 비만에 대한 의식 조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erk, L. E.(2000). *Child development*(pp. 195-198). Boston : Allyn and Bacon.
- Egan, S. K., & Perry, D. G.(1998). Does low self-regard invite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4(2), 299-309.
- Feingold, A.(1992). Good-looking people are not what we think. *Psychological Bulletin*. Vol. 111(2), 304-341.
- Harter(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Harter, S.(1985). *Manual for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 Revision of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University of Denver.
- Harter, S.(1998). The development of self-representations. In W. Damon, & N. Eisenberg(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pp. 591-592). New York : John Wiley & Sons.
- Patterson, C. J., Kupersmidt, J. B., & Griesler, P. C. (1990). Children's perceptions of self and of relationships with others as a function of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1, 1335-1349.
- Pařízková, J., & Hills, A. P.(2001). *Childhood obesity, Prevention and Treatment*(pp. 177-179). Boca Raton : CRC Press LLC.
- Thompson, J. K., & Smolak, L.(2001). Body image, eating disorders, and obesity in youth-the future is now. In J. K. Thompson, & L. Smolak(Eds.), *Body image, eating disorders, and obesity in youth* (pp. 1-18).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5년 8월 31일 투고 : 2005년 10월 24일 채택